

저자 (Authors)	尹在碩
출처 (Source)	동서인문 , (12), 2019.10, 2-3 (2 pages) Journal of East-West Humanities , (12), 2019.10, 2-3 (2 pages)
발행처 (Publisher)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KNU ACADEMY OF HUMANIT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9061
APA Style	尹在碩 (2019). 목간(木簡) 자료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세계. 동서인문, (12), 2-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목간(木簡) 자료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세계

尹在碩

(慶北大學校 人文學院院長)

한자문화권으로 분류되어 온 전근대 동아시아의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 등을 정치적 경계를 허물고 동질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일종의 인문학적 플랫폼이다. 그리하여 역사학·문자학·서지학·문헌학·판본학·인쇄출판학 등의 측면에서 전근대 동아시아 기록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주로 ‘紙質記錄物’에 집중되어 종이와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의 기록문화의 원류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까지 한중일 삼국에서 발굴된 약 90만 매에 달하는 목간은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초적 형태의 究明과 더불어 동아시아 고대 역사상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중 약 40~50만매가 발굴된 중국에서는 소위 ‘簡牘學’이 종래 ‘甲骨學’ 또는 ‘敦煌學’의 반열에 자리매김하면서 春秋戰國史와 秦漢時代史 연구의 핵심적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간백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및 간독 전문 박물관이 목간 연구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약 900매와 40만 매의 목간이 발굴된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각기 목간학회가 결성되어 목간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 삼국 학계에서 목간 연구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각국의 고대사 연구에 목간이 영성한 문헌자료 이상의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각 국가별 독립 분산적 연구는 목간을 매개로 구축된 동아시아 기록문화에 대한 통섭적 연구를 어렵게 하였고, 아울러 동아시아 고대사회가 공유한 목간문화권의 형성과 전개 과정 및 이를 매개로 형성된 고대 동아시아문화의 실제 분석에도 난제로 작용하였다.

이에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진흥사업(HK+)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를 수행 중인바, 목간에 반영된 고대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고대사의 역사상을 새롭게 복원하는 한편, 동아시아역사의 내면을 관통하면서 이를 지탱한 지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산의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번 『동서인문』 제12호에서는 목간학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 학자들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동아시아 목간 학계의 학술교류와 공동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근래 역사학계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일국사적 관점의 편향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경북대 인문학술원이 ‘동아시아목간학’의 중요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